

1987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 研究

姜 東 植

목 차	
I. 서 언	4. 자료처리
II. 조사의 방법 및 내용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IV. 결 론
2. 조사내용	1. 요 약
3. 조사절차	2. 제 언

I. 序 言

대학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 기울여야 한다.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은 입시위주와 안내 중심의 고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대학사회라는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생지도도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신입생들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경제문제, 대인관계, 학과지망동기, 대학생활과 관련된 제문제와 졸업후의 계획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입생들과의 대화와 학생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本研究所 調査研究部長(專任講師)

II.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1987 학년도 신입생 1,82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총 56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본적지, 성장지, 종교, 연령, 재수 여부

2) 가족사항

부모의 생존여부,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의 학력·가족수·출생순위·가족 거주지, 보호자의 직업, 주거형태.

3) 경제사정

가정의 월 수입정도, 학비조달자, 가정의 경제수준, 학비의 충족도, 부직활동 참여여부, 부직 희망이유, 한달 쓰는 평균 용돈

4) 가족 및 대인관계

개인적인 일 논의, 자신과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 가정의 분위기, 가정에서의 문제점, 부모의 교육태도, 부모님의 기대정도, 친구의 수, 대인관계의 만족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이유, 원하는 친구의 유형, 장래 문제에 대한 의논, 이성교제시 경험, 앞으로의 이성관계 결정

5) 대학 및 학과 지망

제주대학교 지망 동기, 학과 결정요인,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학과 선택시기, 선택학과에 대한 만족도

6) 대학생활

입학후 거주예정지,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난제, 대학생활의 비중, 희망하는 씨클활동 분야,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관계, 독서계획, 독서종류, 어학훈련 계획, 어학훈련 방법, 입학후 여가선용 계획, 교내·외 과외활동 참여,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 신입생으로서 알고싶은 사항

7) 졸업후의 계획

대학 졸업후의 계획, 졸업후 희망하는 직업, 직업 선택시 기준,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3. 조사절차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1987년 2월 16일 ~ 18일) 동안 설문조사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수는 1,820명중 1,591명으로 구성비와 회수율은 < 표-A >와 < 표-B >와 같다.

< 표-A > 대학별 성별 구성비

대 학	남	여	계
인 문 대 학	46	218	264
사 회 과 학 대 학	261	109	370
사 범 대 학	58	114	172
농 과 대 학	169	28	197
해 양 과 학 대 학	138	7	145
이 공 대 학	242	120	362
야 간 강 좌 부	61	20	81
계	975	616	1,591

< 표-B > 대학별 설문지 회수율

대 학	배 부	회 수	회 수 율
인 문 대 학	284	264	93 %
사 회 과 학 대 학	420	370	88 %
사 범 대 학	180	172	96 %
농 과 대 학	240	197	82 %
해 양 과 학 대 학	192	145	76 %
이 공 대 학	408	362	89 %
야 간 강 좌 부	96	81	84 %
계	1,820	1,591	87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인 설문 응답지 1,591매의 처리를 문항별, 단과대학별로 그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인적사항

1) 본 적 지

신입생들의 본적지별 분포는 <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북제주군이 31.62%로 가장 많고, 제주시가 24.58%, 남제주군이 20.74%, 서귀포시가 15.27%를 보이고 있으며, 도외에서는 전남이 1.82%로 가장 많고, 부산이 1.31%, 서울이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1 > 본 적 지

대학 항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75	28.41	81	21.89	28	16.28	38	19.29	33	22.76	106	29.28	30	37.04	391	24.58
서귀포시	50	18.94	57	15.41	26	15.12	42	21.32	16	11.03	46	12.71	6	7.41	243	15.27
북제주군	70	26.52	140	37.84	58	33.72	45	22.84	52	35.86	114	31.49	24	29.63	503	31.62
남제주군	51	19.32	79	21.35	37	21.51	50	25.38	26	17.93	72	19.89	15	18.52	330	20.74
서 울	1	0.38	4	1.08	3	1.74	1	0.51	2	1.38	5	1.38	2	4.47	18	1.13
경 기	1	0.38	1	0.27	-	-	2	1.02	1	0.69	3	1.38	-	-	10	0.63
부 산	-	-	1	0.27	-	-	2	1.02	2	1.38	-	-	-	-	5	1.31
충 남	2	0.76	2	0.54	1	0.58	3	1.52	1	0.69	1	0.28	1	1.23	11	0.69
충 북	1	0.38	1	0.27	1	0.58	-	-	-	-	1	0.28	-	-	4	0.25
경 남	-	-	-	-	5	2.91	3	1.52	1	0.69	3	0.38	1	1.23	13	0.82
경 북	-	-	-	-	3	1.74	2	1.02	1	0.69	2	0.55	-	-	8	0.50
전 남	2	0.76	3	0.81	7	4.07	4	2.03	9	6.21	4	1.10	-	-	29	1.82
전 북	-	-	-	-	-	-	-	-	-	1	0.28	2	2.47	3	0.19	
강 원	-	-	-	-	2	1.16	-	-	1	0.69	-	-	-	-	3	0.19

< 이하 무응답자 제외 >

2) 성 장 지

신입생들의 주된 성장지는 < 표-2 >와 같다.

제주시가 40.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제주군이 20.68%, 서귀포시가 17.79%, 남제주군이 16.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로 보아 신입생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성 장 지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131	49.62	138	37.30	55	31.98	54	27.41	58	40.00	176	48.62	36	44.44	648	40.73
서귀포시	55	20.83	65	17.57	32	18.60	53	26.90	16	11.03	58	16.02	4	4.94	283	17.79
북제주군	37	14.02	94	25.41	42	24.42	30	15.23	39	26.90	61	16.85	26	32.10	329	20.68
남제주군	38	14.39	68	18.38	26	15.12	40	20.30	19	13.10	56	15.47	11	13.58	258	16.22
서울	-	-	-	-	2	1.16	4	2.03	2	1.38	2	0.55	1	1.23	11	0.69
경기	1	0.38	-	-	-	-	1	0.51	2	1.38	2	0.55	-	-	6	0.38
부산	-	-	1	0.27	-	-	3	1.52	2	1.38	1	0.28	-	-	7	0.44
충남	1	0.38	1	0.27	1	0.58	1	0.51	1	0.69	1	0.28	1	1.23	7	0.44
충북	-	-	-	-	1	0.58	-	-	-	-	1	0.28	-	-	2	0.13
경남	-	-	-	-	1	0.58	2	1.02	-	-	-	-	-	-	3	0.19
경북	-	-	-	-	4	2.33	1	0.51	-	-	-	-	1	1.23	6	0.38
전남	-	-	1	0.27	5	2.91	-	-	5	3.45	1	0.28	-	-	12	0.75
전북	-	-	-	-	-	-	-	-	-	-	-	-	1	1.23	1	0.06
강원	1	0.38	1	0.27	-	-	1	1.02	1	0.69	-	-	-	-	5	0.31

3) 종 교

신입생들의 종교별 분포는 〈표-3〉과 같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전체의 56.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가 21.56%, 기독교가 11.44%, 천주교가 6.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종 교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기독교	36	13.64	46	12.43	23	13.37	21	10.66	14	9.66	37	10.22	5	6.17	182	11.44
천주교	25	9.47	19	5.14	9	5.23	21	10.66	8	5.52	19	5.25	7	8.64	108	6.79
불교	52	19.70	81	21.89	31	18.02	42	21.32	40	27.59	83	22.93	14	17.28	343	21.56
천도교	1	0.38	1	0.27	-	-	-	-	1	0.69	-	-	2	2.47	5	0.31
기타	1	0.38	7	1.89	2	1.16	1	0.51	1	0.69	4	1.10	8	9.88	24	1.51
없다	147	55.68	209	56.49	106	61.63	106	53.81	77	53.10	209	57.73	45	55.56	899	56.51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가 61.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공대가 57.73%, 야간강좌부가 55.56%, 사회과학대가 56.49%, 인문대가 55.68%

6 學生生活研究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4) 연 령

신입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 표-4 > 와 같다.

198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인 학생이 60.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19세가 21.12%, 만 17세가 6.47%, 만 20세가 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로 보아 조사대상자의 87.80%가 만 17세~19세 사이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4 > 연 령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만 16세 이하	3	1.14	5	1.35	—	—	2	1.02	2	1.38	—	—	—	—	12	0.75
만 17세	20	7.58	26	7.03	10	5.81	8	4.06	8	5.52	28	7.73	3	3.70	103	6.47
만 18세	174	65.91	217	58.65	117	68.02	116	58.88	76	52.41	226	62.43	32	39.51	958	60.21
만 19세	44	16.67	76	20.54	38	22.09	50	25.38	37	25.52	75	20.72	16	19.75	336	21.12
만 20세	12	4.55	24	6.49	5	2.91	11	5.58	12	8.28	8	2.21	11	13.58	83	5.22
만 21세	4	1.52	2	0.54	1	0.58	2	1.02	4	2.76	3	0.83	3	3.70	19	1.19
만 22세	1	0.38	6	1.62	—	—	1	0.51	—	—	—	—	1	1.23	8	0.50
만 23세	—	—	2	0.54	—	—	1	0.51	1	0.69	2	0.55	2	2.47	10	0.63
만 24세 이상	3	1.14	6	1.62	1	0.58	3	1.52	2	1.38	2	0.55	13	16.05	30	1.89

5) 재수여부

신입생들의 재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 표-5 > 와 같다.

< 표-5 > 재 수 여 부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했 다	232	87.88	316	85.41	154	89.53	158	80.20	109	75.17	319	88.12	55	67.90	1,343	84.41
1년 재수	23	8.71	44	11.89	17	9.88	27	13.71	25	17.24	36	9.94	15	18.52	187	11.75
2년 이상 재수	9	3.41	9	2.43	1	0.58	10	5.08	7	4.83	4	1.10	10	12.35	50	3.14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84.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년 재수생이 11.75%, 2년 이상 재수생이 3.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대상자중 14.89%의 학생들이 재수

경험이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이들의 입학전 재수경험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범대학과 인문대학에서 각각 재수경험 학생은 10.46%, 12.1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남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과대학(18.79%), 해양과학대학(22.07%)에서 재수경험 학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재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가족사항

1)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 표-6 > 과 같다.

< 표-6 > 부모의 생존여부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모 모두 생존	230	87.12	312	84.32	134	77.91	174	88.32	122	84.14	317	87.57	63	77.78	1,352	84.98
부 생존, 모 사망	1	0.38	4	1.08	1	0.58	6	3.05	8	5.52	3	0.83	2	2.47	25	1.57
모 생존, 부 사망	32	12.12	54	14.59	54	20.35	17	8.63	15	10.34	41	11.33	12	14.81	206	12.95
부모 사망	1	0.38	-	-	-	-	-	-	1	0.69	1	0.28	4	4.94	7	0.44

양친 모두 생존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84.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친만 생존한다가 12.95%, 부친만 생존한다가 1.57%, 양친 모두 사망이 0.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결손가정이 14.96%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입생 대부분이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야간강좌부가 결손가정 출신 학생 비율이 22.22%로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범대가 20.93%, 해양과학대가 15.86%, 사회과학대학이 15.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보호자와의 관계

신입생들의 보호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 표-7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78.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14.33%, 형, 언니, 누나, 오빠가 1.38%, 친척이 0.57

〈 표 - 7 〉 보호자와의 관계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04	77.27	283	76.49	124	72.09	169	85.79	121	83.45	296	81.77	58	71.60	1,255	78.88
모	40	15.15	60	16.22	36	20.93	18	9.14	13	8.97	47	12.98	14	17.28	228	14.33
형, 언니, 누나, 오빠	3	1.14	5	1.35	1	0.58	5	2.54	4	2.76	1	0.28	3	3.70	22	1.38
조 부	-	-	1	0.27	1	0.58	2	1.02	3	2.07	-	-	-	-	7	0.44
조 모	-	-	-	-	-	-	-	-	1	0.69	1	0.28	1	1.23	3	0.19
친 척	-	-	-	-	-	-	-	-	2	1.38	6	1.66	2	2.47	9	0.57
기 타	1	0.38	1	0.27	-	-	3	1.52	1	0.69	-	-	1	1.23	7	0.44

%, 조부가 0.44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보호자의 연령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연령은 〈 표-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대가 48.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42.24%, 60대가 7.10%, 30대가 0.6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연령은 40 ~ 50대의 층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 8 〉 보호자의 연령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20 대	3	1.14	5	1.35	2	1.16	-	-	2	1.38	3	0.83	3	3.70	18	1.13
30 대	1	0.38	-	-	1	0.58	2	1.02	2	1.38	4	1.10	1	1.23	11	0.69
40 대	110	41.67	164	44.32	73	42.44	91	46.19	60	41.38	152	41.99	22	27.16	672	42.24
50 대	137	51.89	170	45.95	82	47.67	83	42.13	71	48.97	185	51.10	36	44.44	764	48.02
60 대	13	4.92	27	7.30	13	7.56	18	9.14	9	6.21	16	4.42	17	20.99	113	7.10
70 대	-	-	2	0.54	1	0.58	3	1.52	1	0.69	-	-	1	1.23	8	0.50
80 대	-	-	-	-	-	-	-	-	-	-	1	0.28	1	1.23	2	0.13

4) 보호자의 학력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은 〈 표-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이 전체의 3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졸이 24.45%, 중졸이 23.13%, 대졸 이상이 1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9 > 보호자의 학력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무학	3	1.14	11	2.97	9	5.23	9	4.57	2	1.38	13	3.59	2	2.47	49	3.08
한문수학			4	1.08	2	1.16	1	0.51			2	0.55	3	3.70	12	0.75
국졸	64	24.24	101	27.30	41	23.84	53	26.90	26	17.93	82	22.65	22	27.16	389	24.45
중졸	60	22.73	93	25.14	36	20.93	38	19.29	49	33.79	70	19.34	22	27.16	368	23.13
고졸	89	33.71	119	32.16	70	40.70	66	33.50	44	30.34	150	41.44	17	20.99	555	34.88
대졸 이상	45	17.05	37	10.00	14	8.14	28	14.21	20	13.79	43	11.88	15	18.52	202	12.70

5) 출생순위

신입생들의 출생순위는 < 표-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번째라고 응답한 학생이 24.39%로 가장 많고 두번째가 21.43%, 세번째가 19.74%, 네번째가 15.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10 > 출생 순위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첫 번째	63	23.86	92	24.86	43	25.00	49	24.87	41	28.28	79	21.82	21	25.93	388	24.39
두 번째	59	22.35	82	22.16	41	23.84	36	18.27	32	22.07	75	20.72	16	19.75	341	21.43
세 번째	53	20.08	64	17.30	33	19.19	36	18.27	24	16.55	87	24.03	17	20.99	314	19.74
네 번째	45	17.05	65	17.57	21	12.21	39	19.80	20	13.79	49	13.54	7	8.64	246	15.46
다섯 번째	24	9.09	27	7.30	15	8.72	14	7.11	10	6.90	42	11.60	14	17.28	146	9.18
여섯 번째	17	6.44	21	5.68	11	6.40	15	7.61	12	8.28	20	5.52	2	2.47	98	6.16
일곱 번째	3	1.14	13	3.51	5	2.91	6	3.05	3	2.07	7	1.93	3	3.70	40	2.51
여덟 번째	-	-	3	0.81	2	1.16	-	-	2	1.38	1	0.28	-	-	8	0.50
아홉 번째	-	-	1	0.27	1	0.58	2	1.02	1	0.69	1	0.28	1	1.23	7	0.40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45.85%가 첫번째 또는 둘째 아들 및 딸들임을 알 수 있다.

6) 가족수

신입생의 가족수는 < 표-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6.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명이 23.63%, 7명이 21.81%, 8명 이상이 15.02%, 4명이 8.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11 〉 가 족 수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1 인	-		1	0.27	-		1	0.51	1	0.69	1	0.28	-		4	0.25
2 인	-		2	0.54	4	2.33	2	1.02	3	2.07	2	0.55	3	3.70	16	1.01
3 인	5	1.89	20	5.41	7	4.07	5	2.54	7	4.83	6	1.66	4	4.94	54	3.39
4 인	22	8.33	36	9.73	12	6.98	16	8.12	12	8.28	29	8.01	10	12.35	137	8.61
5 인	60	22.73	85	22.97	32	18.60	57	28.93	36	24.83	85	23.48	21	25.93	376	23.63
6 인	77	29.17	94	25.41	43	25.00	43	23.35	45	31.03	95	26.24	20	24.69	417	26.21
7 인	59	22.35	76	20.54	40	23.26	39	19.80	29	2.00	92	25.41	12	14.81	347	21.81
8인 이상	41	15.53	56	15.14	34	19.77	34	17.26	12	8.28	51	14.09	11	13.58	239	15.02

또한 3명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65%를 차지하고 있다.

7) 가족 거주지

신입생들의 가족 거주지는 〈 표 -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제주시가 4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제주군이 18.79%, 서귀포시가 17.72%, 남제주군이 16.34%의 순이며 도외지역에서는 서울이 0.75%, 충남이 0.50%, 전남이 0.4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12 〉 가 족 거 주 지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142	53.79	146	39.46	60	34.88	59	29.95	65	44.83	177	48.90	36	44.44	685	43.05
서귀포시	55	20.83	62	16.76	34	19.77	54	27.41	15	10.34	56	15.47	6	7.41	282	17.72
북제주군	31	11.74	87	23.51	38	22.09	34	17.26	33	22.76	53	14.64	23	28.40	299	18.79
남제주군	35	13.26	70	18.92	25	14.53	39	19.80	22	15.17	57	15.75	12	14.81	260	16.34
서 울	-		1	0.27	3	1.74	3	1.52	2	1.38	2	0.55	1	1.23	12	0.75
경 기	-		-		-		-		1	0.69	2	0.55	-		3	0.19
부 산	-		1	0.27	-		2	1.02	1	0.69	1	0.28	-		4	0.25
충 남	1	0.38	3	0.81	1	0.58	1	0.51	-		1	0.28	1	1.23	8	0.50
충 북	-		-		1	0.58	-		-		1	0.28	-		2	0.13
경 남	-		-		2	1.16	2	1.02	-		-		-		4	0.25
경 북	-		-		4	2.33	1	0.51	1	0.69	-		-		6	0.38
전 남	-		-		2	1.16	-		4	2.76	1	0.28	-		7	0.44
전 북	-		-		-		-		-		-		2	2.46	2	0.13
강 원	-		-		-		1	0.51	1	0.69	-		-		2	0.13

가족 거주지가 도외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가 7.55%, 해양과학대가 5.9%, 농과대가 5.09%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주택형태

신입생의 주택형태는 < 표-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 88.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가주택이 6.22%, 아파트(연립주택)가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13 > 주택 형태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단 독 주 택	225	85.23	335	90.54	156	90.70	177	89.85	121	83.45	325	89.78	70	86.42	1,409	88.56
아 파 트 (연립주택)	10	3.79	9	2.43	1	0.58	8	4.06	8	5.52	6	1.66	2	2.47	44	2.77
상 가 주 택	26	9.85	20	5.41	10	5.81	7	3.55	11	7.59	22	6.08	3	3.70	99	6.22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학이 90.70%, 사회과학대학이 90.54%, 농과대학이 89.85%, 이공대학이 89.78%, 야간강좌부가 86.42%, 인문대학이 85.23%의 순으로 밝혀졌다.

3. 경제사정

1) 가정의 월 수입 정도

신입생들의 가정의 월 수입 정도는 < 표-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만원 이하가 23.76%,

< 표-14 > 가정의 월 수입 정도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20만원 이하	51	19.32	95	25.68	45	26.16	38	19.29	41	28.28	84	23.20	24	29.63	378	23.76
20~29만원	47	17.80	80	21.62	36	20.93	25	12.69	33	22.76	68	18.78	14	17.28	303	19.04
30~39만원	49	18.56	75	20.27	38	22.09	43	21.83	28	19.31	74	20.44	21	25.93	328	20.62
40~49만원	32	12.12	47	12.70	17	9.88	29	14.72	10	6.90	55	15.19	5	6.17	195	12.26
50~59만원	34	12.88	34	9.19	11	6.40	24	12.18	13	8.97	35	9.67	5	6.17	156	9.81
60~69만원	7	2.65	7	1.89	3	1.74	8	4.06	2	1.38	9	2.49	4	4.94	40	2.51
70만원 이상	10	3.79	8	2.16	4	2.33	12	6.09	6	4.14	13	3.59	6	7.41	59	3.71

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39만원이 20.62%, 20~29만원이 19.4%, 40~49만원이

12.26%, 70만원 이상이 3.71%, 60~69만원이 2.51%를 차지하고 있다.

2) 학비 부담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76.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13.95%, 형, 언니, 누나, 오빠가 2.77%, 본인이 1.82%, 친척이 0.75%, 조부모가 0.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학비 부담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01	76.14	279	75.41	123	71.51	158	80.20	114	78.62	285	78.73	53	65.43	1,213	76.24
모	35	13.26	58	15.68	37	21.51	20	10.15	15	10.34	45	12.43	12	14.81	222	13.95
조 부 모	1	0.38	2	0.54	1	0.58	2	1.02	3	2.07	1	0.28	—	—	10	0.63
형, 언니, 누나, 오빠	11	4.17	4	1.08	6	3.49	3	1.52	8	5.52	9	2.49	3	3.70	44	2.77
본 인	5	1.89	6	1.62	—	—	6	3.05	1	0.69	5	1.38	6	7.41	29	1.82
친 척	3	1.14	2	0.54	—	—	1	0.51	2	1.38	3	0.83	1	1.23	12	0.75
기 타	3	1.14	11	2.97	—	—	2	1.02	1	0.69	3	0.83	5	6.17	25	1.57

따라서 신입생들 대부분이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7.41%, 농과대학이 3.05%, 인문대학이 1.89% 등의 순이다.

3) 가정의 경제수준

신입생들의 가정 경제수준은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겨우 유지를 한다고 응답한

〈표-16〉 가정의 경제수준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충분한 여유	3	1.14	8	2.16	1	0.58	6	3.05	3	2.07	7	1.93	4	4.94	32	2.01
비교적 여유	134	50.76	6	1.62	61	35.47	105	53.30	54	37.24	147	40.61	25	30.86	532	33.44
겨우 유지	92	34.85	157	42.43	75	43.60	71	36.04	65	44.83	150	41.44	34	41.98	644	40.48
곤란함	25	9.47	142	38.38	30	17.44	14	7.11	18	12.41	36	9.94	6	7.41	271	17.03
매우 곤란함	7	2.65	48	12.97	5	2.91	1	0.51	4	2.76	8	2.21	12	14.81	85	5.34

학생들이 40.48%로 가장 많고, 비교적 여유가 있다가 33.44%, 곤란함이 17.03%, 매우 곤란함이 5.34%,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부직 희망 여부

신입생들의 부직 희망 여부는 < 표-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건이 주어지면 한번쯤 해

< 표-17 > 부직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원하지 않음	3	1.14	15	4.05	5	2.91	1	0.56	6	4.14	12	3.31	8	9.88	50	3.14
구체적으로 생각 않음	24	9.09	52	14.05	23	13.37	24	13.41	17	11.72	48	13.26	10	12.35	198	12.45
한번쯤 해보 고 싶다	162	61.36	196	52.97	97	56.40	128	64.97	79	54.48	210	58.01	34	41.98	906	56.95
꼭 해야만 하 겠다	74	28.03	107	28.92	47	27.33	44	22.34	42	28.97	91	25.14	28	1.76	433	27.22

보고 싶다가 56.95%, 꼭 해야만 하겠다고 27.22%,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12.45%, 그리고 원하지를 않고 있다 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15.59%만이 부직 희망 여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부직 희망 이유

신입생들의 부직 희망 이유는 < 표-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가 34.95%,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22.88%,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21.31%, 그리고 자립정신·인내심·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가 15.6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18 > 부직 희망 이유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 비 마 련	53	20.08	81	21.89	34	19.77	31	15.74	38	26.21	66	18.23	36	44.44	339	21.31
용 돈 마 련	62	23.48	87	23.51	41	23.84	44	22.34	20	13.79	91	25.14	19	23.46	364	22.88
사 회 경 험	103	39.02	130	35.14	64	37.21	71	36.04	51	35.17	113	31.22	24	29.63	556	34.95
자립정신, 인 내심, 책임감 을 기르기 위해	39	14.77	49	13.24	21	12.21	44	22.34	26	17.93	68	18.78	2	2.47	249	15.65

학비 마련을 위해서 부직을 희망한다고 한 학생들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야간강좌부가 44.44%,

해양과학대학이 26.21%, 사회과학대학이 21.89%, 인문대학이 20.08%, 사범대학이 19.77%, 이공대가 18.23%, 그리고 농과대학이 15.74%의 순이었다.

6) 한달 평균 쓰는 용돈

신입생들의 한달 평균 쓰는 용돈은 < 표-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천원~1만원이 31.43%,

< 표-19 > 한달 평균 쓰는 용돈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5천원 이하	48	18.18	68	18.38	26	15.12	34	17.26	24	16.55	82	22.65	16	19.75	298	18.73
5천원~1만원	94	35.61	120	32.43	60	34.88	49	24.87	46	31.72	114	31.49	17	20.99	500	31.43
1만~2만원	65	24.62	85	22.97	42	24.42	51	25.89	36	24.83	89	24.59	13	16.05	381	23.95
2만~3만원	32	12.12	56	15.14	26	15.12	30	15.23	21	14.48	42	11.60	12	14.81	219	13.76
3만~4만원	11	4.17	26	7.03	6	3.49	19	9.64	8	5.52	17	4.70	7	8.64	94	5.91
4만~5만원	2	0.76	8	2.16	4	2.33	9	4.57	5	3.45	6	1.66	6	7.41	40	2.51
5만원 이상	3	1.14	2	0.54	4	2.33	1	0.51	5	3.45	4	1.10	10	12.35	29	1.82

1만원~2만원이 23.95%, 5천원 이하가 18.73%, 2만~3만원이 13.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족 및 대인관계

1) 가족내에서의 개인적인 일 논의

가족 중에서 누구와 주로 개인적인 일을 논의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가 36.14%로 가장 많고, 어머니가

< 표-20 > 가족내에서의 개인적인 일 논의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9	10.98	67	18.11	24	13.95	43	21.83	41	28.28	52	14.36	18	22.22	274	17.22
모	73	27.65	90	24.32	48	27.91	40	20.30	18	12.41	73	20.17	15	18.52	357	22.44
형, 누나, 오빠, 언니	108	40.91	124	33.51	68	39.53	58	29.44	44	30.34	145	40.06	28	34.57	575	36.14
동 생	9	3.41	8	2.16	5	2.91	1	0.51	4	2.76	6	1.66	2	2.47	35	2.20
의논 않음	25	9.47	55	14.86	18	10.47	24	12.18	20	13.79	58	16.02	15	18.52	215	13.51
기 타	17	6.44	15	4.05	5	2.91	22	11.17	13	8.97	19	5.25	3	3.70	94	5.91

22.44%, 아버지가 17.22%, 의논을 하지 않는다가 13.51%, 기타가 5.91%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부모와의 견해의 차이

가정에서 자신과 부모와의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치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차이가 다소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1.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20.43%, 차이가 심하다가 13.95%, 차이가 없다가 4.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21 > 부모와의 견해의 차이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차이가 심함	33	12.50	64	17.30	23	13.37	24	12.18	13	8.97	52	14.36	13	16.05	222	13.95
차이가 다소 있음	174	65.91	214	57.84	112	65.12	119	60.41	97	66.90	214	59.12	41	50.62	971	61.03
그저 그렇다	45	17.05	70	18.92	30	17.44	42	21.32	31	21.38	85	23.48	22	27.16	325	20.43
차이가 없음	12	4.55	19	5.14	7	4.07	12	6.09	2	1.38	11	3.04	4	4.94	67	4.21

3)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화목한 편이라고 응답

< 표 - 22 > 가정의 분위기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언제나 화목	37	14.02	38	10.27	19	11.05	17	8.63	22	15.17	47	12.98	12	14.81	192	12.07
비교적 화목	173	65.53	220	59.46	112	65.12	128	64.97	84	57.93	216	59.67	37	45.68	970	60.97
그저 그렇다	49	18.56	101	27.30	38	22.09	50	25.38	29	20.00	89	24.59	27	33.33	383	24.07
화목치 못한 편	5	1.89	9	2.43	3	1.74	2	1.02	7	4.83	9	2.49	5	6.17	40	2.51

한 학생이 60.97%로 가장 많고, 그저 그렇다가 24.07%, 언제나 화목하다가 12.07%, 비교적 화목치 못하다가 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73.04%가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가정에서의 큰 문제점

신입생들 중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은 < 표-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이 20.93%,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17.54%, 기타가 9.87%, 가정불화가 4.90%, 가정내 질병이 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23 > 가정에서의 큰 문제점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경 제 문 제	96	36.36	167	45.14	81	47.09	71	36.04	59	40.69	152	41.99	39	48.15	665	41.80
부모와의 의 견차	55	20.83	63	17.03	24	13.95	43	21.83	18	12.41	68	18.78	8	9.88	279	17.54
가 정 불 화	14	5.30	14	3.78	11	6.40	7	3.55	8	5.52	17	4.70	7	8.64	78	4.90
가정내 질병	8	3.03	14	3.78	5	2.91	3	1.52	6	4.14	13	3.59	4	4.94	53	3.33
기 타	23	8.71	34	9.19	14	8.14	25	12.69	17	11.72	35	9.67	9	11.11	157	9.87
문제점 없다	62	23.48	74	20.0	34	19.77	45	22.84	31	21.38	74	20.44	13	16.05	333	20.93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48.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범대학(47.09%), 사회과학대학(45.14%), 이공대학(41.99%), 해양과학대학(40.69%), 인문대학(36.36%), 농과대학(36.04%) 순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양육태도

신입생들에게 대한 부모의 양육상태를 조사한 바로는 민주적이라고 나타났다.

< 표-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신입생은 50.85%로 가장 많고, 다

< 표-24 > 부모의 양육태도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민주적이다	153	57.95	179	48.38	95	55.23	107	54.31	71	48.97	172	47.51	32	39.51	809	50.85
방임적이다	29	10.98	65	17.57	26	15.12	21	10.66	18	12.41	64	17.68	11	13.58	234	14.71
엄격 통제적	56	21.21	91	24.59	44	25.58	53	26.90	37	25.52	83	22.93	28	34.57	392	24.64
기 타	24	9.09	33	8.92	4	2.33	16	8.12	7	4.83	37	10.22	10	12.35	131	8.23

음으로 엄격하고 통제적이다가 24.64%, 방임적이다가 14.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민주적인 경우 인문대학이 57.95%로 가장 높고 야간강좌부가

39.51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부모의 기대정도

신입생들의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정도를 살펴보면 < 표-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높다가 69.58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21.50 %, 부응하기 힘들다가 5.97 %, 비교적 낮다가 1.51 %, 관심이 거의 없다가 0.31 %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25 > 부모의 기대정도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응하기 힘들	6	2.27	11	2.97	14	8.14	45	22.84	7	3.55	5	1.38	7	8.64	95	5.97
비교적 높음	188	71.21	284	76.76	111	29.84	115	58.38	108	54.82	255	70.44	46	56.79	1,107	69.58
그저 그렇다	68	25.76	66	17.84	29	16.86	36	18.27	26	13.20	95	26.24	22	27.16	342	21.50
비교적 낮음	-	-	7	1.87	7	4.07	1	0.51	1	0.51	5	1.38	3	3.70	24	1.51
관심이 거의 없음	1	0.38	1	0.27	-	-	-	-	-	-	1	0.28	3	3.70	5	0.31

이처럼 신입생들의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과학대학이 76.76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문대학 (71.21 %), 이공대학 (70.44 %), 농과대학 (58.38 %), 야간강좌부 (56.79 %), 해양과학대학 (54.82 %), 사범대학 (29.84 %) 순으로 나타났다.

7) 사귀고 있는 친구 수

신입생들이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알기 위한 조사 결과는 < 표-26 >에서와 같이 몇몇이 있다고가 61.28 %로 가장 많으며, 그리고 많다가 31.87 %, 없다가

< 표-26 > 사귀고 있는 친구 수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많음	92	34.85	141	38.11	55	31.98	73	37.06	58	40.00	128	35.36	30	37.04	577	31.87
몇몇 있음	167	63.26	220	59.46	116	67.44	120	60.91	84	57.93	225	62.15	43	53.09	975	61.28
없음	3	1.14	4	1.08	1	0.58	4	2.03	1	0.69	2	0.55	5	6.17	20	1.26
필요성 못느낌	1	0.38	2	0.54	-	-	-	-	1	0.69	5	1.38	3	3.70	12	0.75

1.26 %,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0.75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대인관계의 만족도

신입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 표-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로 곤란하지 않다가

< 표-27 > 대인관계의 만족도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이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아주 원만	54	20.45	67	18.11	13	18.02	44	22.34	41	28.28	83	22.93	23	28.40	343	21.56
별 곤란 없다	171	64.77	242	65.41	113	65.70	130	65.99	86	59.31	214	59.12	38	46.91	994	62.48
약간 힘들다	36	13.64	52	14.05	26	15.12	21	10.66	15	10.34	59	16.30	16	19.75	225	14.14
아주 힘들다	3	1.14	7	1.89	2	1.16	2	1.02	-		3	0.83	4	4.94	21	1.32

62.48 %로 응답한 신입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주 원만하다가 21.56 %, 약간 힘들다가 14.14 %, 아주 힘들다가 1.3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 결과와 같이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약 84 %를 차지하고 있어 대인관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앞으로 원하는 친구의 유형

원하는 친구의 유형을 묻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표-28 > 앞으로 원하는 친구의 유형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이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으로 대할 수 있는 친구	40	15.15	43	11.62	15	8.72	20	10.15	14	9.66	49	13.54	8	9.88	189	11.88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	37	14.02	53	14.32	23	13.37	32	16.24	16	11.03	57	15.75	16	19.75	234	14.71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179	67.80	256	69.19	128	74.42	134	68.02	107	73.79	241	66.57	52	64.20	1,097	68.95
국가, 사회를 고민하는 친구	2	0.76	9	2.43	4	2.33	2	0.51	2	1.38	3	0.83	-		22	1.38
기 타	4	1.52	4	1.08	1	0.58	5	2.54	1	0.69	3	0.83	2	2.47	20	1.26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8.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14.71%), 학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11.88%), 국가와 사회를 고민하는 친구(1.38%), 기타(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신입생들에게 장래문제에 관하여 혼자 결심하기 어려울 때 주로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라는 물음에는 < 표-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들과 의논한다가 전체의 40.35%를 차지하

< 표-29 >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가 족	109	41.29	131	35.41	72	41.86	74	37.56	64	44.14	162	44.75	30	37.04	642	40.35
친 구	86	32.58	132	35.68	61	35.47	59	29.95	40	27.59	121	33.43	31	38.27	530	33.31
선 배	21	7.95	48	12.97	7	4.07	33	16.75	16	11.03	28	7.73	8	9.88	161	10.12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	34	12.88	31	8.38	27	15.70	16	8.12	9	6.21	23	6.35	7	8.64	147	9.24
기 타	7	2.65	21	5.68	2	1.16	15	7.61	8	5.52	25	6.91	4	4.94	82	5.15

고 있고, 다음으로는 친구가 33.31%, 선배와가 10.12%,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들과가 9.24%, 기타가 5.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이성간에 사귀었던 경험

이성간에 교제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 표-30 >에서와 같이 경험이 한번도 없다가 단연 전체의 58.08%를 차지하고 있고, 한번 있었다가 22.87%, 몇 번 있었다가 17.72%, 그리고 자주 있었다가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30 > 이성간에 사귀었던 경험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없 다	182	68.94	203	54.86	110	63.95	110	55.84	60	41.38	229	63.26	30	37.04	924	58.08
한번 있었다	47	17.80	86	23.24	33	19.19	42	21.32	34	23.45	74	20.44	16	19.75	332	22.87
몇 번 있었다	31	11.74	74	20.00	27	15.70	37	18.78	43	29.66	49	13.54	21	25.93	282	17.72
자주 있었다	4	1.52	7	1.89	2	1.16	6	3.05	5	3.45	10	2.76	11	13.58	45	2.83

이처럼 신입생들의 과반수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이가 많고 직장인이 많은 야간강좌부인 경우는 한번 이성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학 및 학과 지망

1) 제주대학교 지원 동기

신입생들에게 본교를 지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 표-31 >에서 보는

< 표-31 > 제주대학교 지원 동기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국립대학이기 때문	52	19.70	50	13.51	19	11.05	19	9.64	16	11.03	38	10.50	15	18.52	209	13.14
학문연구를 위 하여	2	0.76	8	2.16	3	1.74	13	6.60	47	32.41	31	8.56	4	4.94	108	6.79
직업을 갖기 위하여	25	9.47	52	14.05	29	16.86	45	22.84	5	3.45	38	10.50	14	17.28	208	13.07
입학 가능성 을 고려	61	23.11	69	18.65	24	13.95	61	30.96	26	17.93	88	24.31	15	18.52	344	21.62
타대학 진학 사 정이 되지 않아	88	33.33	140	37.84	75	43.60	34	17.26	32	20.07	101	27.90	22	27.16	492	30.92
기 타	34	12.88	46	12.43	22	12.79	24	12.18	14	9.66	62	17.13	10	12.35	177	10.75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타대학으로 진학사정이 되지 않아서가 전체의 30.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입학가능성을 고려가 21.62%, 국립대학이기 때문이 13.14%,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1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범대학이 43.60%로 가장 높고 농과대학이 17.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학과선택 결정 요인

신입생들의 학과선택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 표-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적 전망 때

< 표-32 > 학과선택 결정 요인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직업적 전망	64	24.24	170	45.95	81	47.09	52	26.40	71	48.97	149	41.16	30	37.04	617	38.78
적성에 맞음	128	48.48	96	25.95	57	33.14	45	22.84	27	18.62	108	29.83	15	18.52	476	29.92
입학 가능성	24	9.09	51	13.78	14	8.14	53	26.90	14	9.66	40	11.05	15	18.52	211	13.26
이상 실현	27	10.23	22	5.95	9	5.23	16	8.12	16	4.14	24	6.63	8	9.88	122	7.67
기 타	21	7.95	31	8.38	9	5.23	31	15.74	12	8.28	41	11.33	13	16.05	158	0.50

문제가 전체의 38.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성에 맞아서가 29.92%, 입학 가능성 때문이 13.26%,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7.67%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지망학과에 대하여 어느

〈표-33〉 지원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잘 알고 있었음	28	10.61	22	5.95	14	8.14	21	10.66	11	7.59	22	6.08	15	18.52	133	8.36
대강 알고 있었음	130	49.24	195	52.70	105	61.05	94	47.72	76	52.41	189	52.21	34	41.98	823	51.73
잘 몰랐었음	90	34.09	126	34.05	51	29.65	63	31.98	40	27.59	126	7.18	28	34.57	524	32.94
전혀 몰랐었음	16	6.06	23	6.22	2	1.16	10	5.08	6	4.14	22	6.08	1	1.23	80	5.03

정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대강 알고 있었다가 전체의 51.73%로 가장 많았고 잘 몰랐었다가 32.94%, 잘 알고 있었다가 8.36%, 그리고 전혀 몰랐었다가 5.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생들의 약 60% 이상이 학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전지식을 갖고서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4) 학과를 선택한 시기

신입생들이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고사 점수가 발표된

〈표-34〉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력고사점수 발표 직후	80	30.30	155	41.89	60	34.88	80	40.61	81	55.86	186	51.38	30	37.04	672	42.24
입학원서 접수 직전	58	21.97	131	35.41	46	26.74	66	33.50	31	21.38	103	28.45	20	24.69	455	28.60
고교 재학시	101	38.26	74	20.00	52	30.23	43	21.83	29	20.00	65	17.96	17	20.99	381	23.95
중학교 또는 그 이전	23	8.71	8	2.16	13	7.56	6	3.05	3	2.07	5	1.38	12	14.81	70	4.40

직후에가 42.24 %로 가장 많았고, 입학원서 접수 직전이 28.60 %, 고교 재학시기 때가 23.95 %, 그리고 중학교 또는 그 이전이 4.40 %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선택학과에 대한 만족도

신입생들이 현재 입학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 표-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

< 표-35 > 선택학과에 대한 만족도

항 목	대 학		인 문 대		사 회 과학 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 양 과학 대		이 공 대		야 간 강 좌 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만 족 하 다	117	44.32	131	35.41	80	46.51	65	32.99	66	45.52	125	34.53	29	35.80	613	38.53		
보 통 이 다	91	34.47	159	42.97	60	34.88	80	40.61	50	34.48	148	40.88	32	39.51	620	38.97		
불 만 이 다	6	2.27	15	4.05	7	4.07	9	4.57			13	3.59	8	9.88	58	3.65		
현 재 는 잘 모 르	49	18.56	63	17.03	24	13.95	42	21.32	24	16.55	73	20.17	10	12.35	285	17.91		

통이다가 38.97 %, 만족하다가 38.53 %, 현재는 잘 모르겠다가 17.91 %, 그리고 불만이다가 3.65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에 있어서 만족과 보통이라고 한 것을 대학별로 보면 사범대학이 약간 높고, 불만이라고는 야간강좌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6. 대학생활

1) 입학후 거주지

신입생들에게 입학후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를 < 표-3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집에서가

< 표-36 > 입학후 거주지

항 목	대 학		인 문 대		사 회 과학 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 양 과학 대		이 공 대		야 간 강 좌 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 가	186	70.45	218	58.92	89	51.74	116	58.88	89	61.38	245	67.68	40	49.38	938	61.79		
하 숙	8	3.03	13	3.51	7	4.07	10	5.08	9	6.21	8	2.21	4	4.94	59	3.71		
친 척 친 지 맥	11	4.17	30	8.11	10	5.81	13	6.60	13	8.97	17	4.70	9	11.11	103	6.47		
자 취	53	20.08	83	22.43	58	33.72	38	19.29	20	13.79	69	19.06	20	24.69	341	21.43		
기 타	6	2.27	22	5.95	8	4.65	19	4.57	11	5.58	21	5.80	6	7.41	93	5.85		

61.79 %로 가장 많았고, 자취가 21.43 %, 친척이나 친지맥에서가 6.47 %, 기타가 5.85 %, 그리고 하숙이 3.71 %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

대학 전기간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대학환경에 접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 표-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비문제가 전체의 25.27%로 가장 많았고, 장래 진학문제가 23.19%, 학업성취 문제가 22.94%, 성격 및 대학사회 적응문제가 15.7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37 > 대학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 비 문 제	63	23.86	110	29.73	34	19.77	39	19.80	43	29.66	86	23.76	27	33.33	402	25.27
건 강 문 제	5	1.89	4	1.08	7	4.07	-	-	5	3.45	7	1.93	4	4.94	32	2.01
병 역 문 제	2	0.76	20	5.41	3	1.74	17	8.63	5	3.45	15	4.14	8	9.88	70	4.40
학업성취문제	56	21.21	91	24.59	43	25.00	48	24.37	29	20.00	77	21.27	21	25.93	365	22.94
성격 및 대학 사회 적응문제	47	17.80	52	14.05	46	26.74	28	14.21	16	11.03	54	14.92	7	8.64	250	15.71
장래진학문제	78	29.55	71	19.19	32	18.60	53	26.90	37	25.52	91	25.14	7	8.64	369	23.19
기 타	7	2.65	10	2.70	1	0.58	12	2.09	5	3.45	23	6.35	5	6.17	63	7.96

3) 대학생활에서의 비중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중에 어떤 면에 비중을 두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 표-3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넓은 교양과 원만한 성격이 45.25%로 가장 많았고 학문적 지식 취득이 26.15%,

< 표-38 > 대학생활에서의 비중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 지식 습득	87	32.95	68	18.38	68	39.53	46	23.35	29	20.00	103	28.45	15	18.52	416	26.15
폭넓은 교양 과 인격	140	53.03	165	44.59	68	39.53	92	46.70	61	42.07	157	43.37	37	45.68	720	45.25
직업인으로서 의 준비	22	8.33	113	30.54	30	17.44	38	19.29	43	29.66	80	22.10	18	22.22	344	21.62
정서적 성숙	11	4.17	6	1.62	4	2.33	6	3.05	6	4.14	10	2.76	6	7.41	49	3.08
기 타	3	1.14	6	1.62	1	0.58	6	3.05	2	1.38	6	1.66	3	3.70	27	1.70

직업인으로서의 준비가 21.62%,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과외활동 참여 여부

< 표 - 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입학후 스스로 희망하여 과외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

< 표 - 39 > 과외활동 참여 여부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 술 분 야	45	17.05	49	13.24	37	21.51	8	4.06	15	10.34	41	11.33	11	13.58	206	12.95
봉 사 활 동 분 야	23	8.71	38	10.27	17	9.88	20	10.15	17	11.72	20	5.52	9	11.11	144	9.05
취 미 교 양 분 야	112	42.42	137	37.03	64	37.21	64	32.49	41	28.28	149	41.16	29	35.80	596	37.46
종 교 분 야	17	6.44	17	4.59	9	5.23	7	3.55	3	2.07	15	4.14	1	1.23	69	4.34
스 포 츠 활 동 분 야	24	9.09	62	16.76	24	13.95	40	20.30	34	23.45	62	17.13	12	14.81	258	16.22
기 타	4	1.52	7	1.89	2	1.16	12	6.09	9	6.21	10	2.76	2	2.47	46	2.89
참 여 않 겠 다	8	3.03	17	4.59	9	5.23	9	4.57	3	2.07	16	4.42	5	6.17	67	4.21
생 각 안 해 봄	28	10.61	35	9.46	10	5.81	29	14.72	15	10.34	39	10.77	8	9.88	164	10.31

보면 취미교양 분야가 37.46%로 가장 많고, 스포츠활동 분야가 16.22%, 학술분야가 12.95%,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가 10.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

신입생들이 바라는 교수와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 표 - 4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 표 - 40 >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실질적인 조연	177	67.05	215	58.11	105	61.05	99	50.25	65	44.83	197	54.42	35	43.21	893	56.13
밀착된 인간 관계	83	31.44	140	37.84	60	34.88	88	44.67	73	50.34	139	38.40	27	33.33	610	38.34
엄격한 관계	-	-	8	2.16	3	1.74	2	1.02	-	-	6	1.66	9	11.11	28	1.76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다	3	1.14	7	1.89	1	0.58	6	3.06	1	0.69	9	2.49	4	4.94	31	1.95

조연을 바란다가 전체의 56.13%로 가장 많았고, 밀착된 인간관계가 38.34%, 엄격한 관계가 1.76%, 의사소통이 안될 것 같다가 1.95%로 나타났다.

6) 앞으로의 독서계획

신입생에 대한 앞으로의 독서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표-41 >에서와 같이 틈틈이

< 표-41 > 앞으로의 독서계획

대학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독서량을 계획	61	23.11	59	15.95	33	19.19	22	11.17	18	12.41	58	16.02	10	12.35	261	16.40
틈틈이	203	76.89	291	78.65	125	72.67	169	85.79	119	82.07	292	80.66	60	74.07	1,259	79.13
기타	-		16	4.32	12	6.98	3	1.52	4	2.03	9	2.49	7	8.64	51	3.21

시간이 나는 대로 하겠다가 전체의 78.13%로 가장 많고 독서시기와 독서량을 계획해서 하겠다가 16.40%, 기타가 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독서종류

< 표-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독서종류를 살펴보면 문학 및 취미 독서가 32.43%로

< 표-42 > 독서종류

대학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과 관련된 도서	71	26.89	136	36.76	27	15.70	60	30.46	52	35.86	115	31.77	24	29.63	485	30.48
교양도서	64	24.24	123	33.24	61	35.47	50	25.38	32	22.07	116	32.04	18	22.22	464	29.16
문학 취미도서	104	39.39	97	26.22	71	41.28	72	36.55	43	29.66	100	27.62	29	35.80	516	32.43
기타	10	3.79	14	3.78	2	1.16	3	1.52	10	6.90	17	4.70	7	8.64	63	3.96

많았고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30.48%, 교양도서가 29.16%, 기타가 3.96%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어학 훈련에 대한 계획

< 표-4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을 보면 제 1·2 외국어를 중심으로 수시로 하겠다가 42.74%로 가장 많았고, 제 1 외국어 중심으로 하겠다가 24.95%, 전공과 같은 비중이 18.2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43 〉 어학 훈련에 대한 계획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 1 외 국 어	36	13.64	110	29.73	56	32.56	38	19.29	21	14.48	115	31.77	21	25.93	397	24.95
제 1, 2 외 국 어	143	54.17	149	40.27	77	44.77	84	42.64	64	44.14	133	36.74	30	37.04	680	42.74
전공 이상의 중 비	24	9.09	34	9.19	12	6.98	18	9.14	21	14.48	34	9.39	11	13.58	154	9.68
전공과 같은 중 비	57	21.59	59	15.95	20	11.63	44	22.34	32	22.07	68	18.78	11	13.58	291	18.29
필요성 느 못 낌	4	1.52	9	2.43	6	3.49	10	51.08	4	2.76	9	2.49	2	2.47	44	2.77

9) 입학 후 여가활동 계획

신입생들이 입학 후 여가활동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표-44 〉에서 보는 바와 같

〈 표-44 〉 입학 후 여가활동 계획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독 서	44	16.67	44	11.89	30	17.44	21	10.66	8	5.52	38	10.50	12	14.81	197	12.38
특 기 · 취 미 활 동	79	29.92	90	24.32	47	27.33	59	29.95	48	33.10	90	24.86	13	16.05	426	26.78
스 포 츠	13	4.92	46	12.43	15	8.72	27	13.71	17	11.72	42	11.60	14	17.28	177	11.13
교 수 · 친 구 · 이 성 만 남	12	4.55	39	10.54	16	9.30	20	10.15	15	10.34	48	13.26	9	11.11	159	9.99
어 학 훈 련	33	12.50	32	8.65	8	4.65	6	3.05	11	7.59	14	3.87	4	4.94	108	6.79
학 업 보 충	32	12.12	45	12.16	21	12.21	19	9.64	19	13.10	60	16.57	5	6.17	201	12.63
교 양 정 서 합 양	25	9.47	28	7.57	16	9.30	10	5.08	6	4.14	21	5.80	6	7.41	112	7.04
봉 사 활 동	-		6	1.62	3	1.74	-		1	0.69	3	0.83	-		13	0.82
부 직 활 동	10	3.79	15	4.15	2	1.16	7	3.55	7	4.83	13	3.59	7	8.64	61	3.83
기 타	6	2.27	7	1.89	-		10	5.08	3	2.07	7	1.93	2	2.47	35	2.20

이 특기 및 취미활동이 전체의 26.78%로 가장 높았고, 학업보충이 12.63%, 독서생활이 12.38%, 스포츠가 11.13%, 교수·친구·이성과의 만남이 9.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신입생들에게 대한 불음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 표 - 4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가 40.73 %로 가장 많았고, 다소 긍지를

< 표 - 45 >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대단히 긍지	51	19.32	58	15.68	22	12.79	44	22.34	47	32.41	37	10.22	21	25.93	280	17.60
다 소 긍 지	95	35.98	126	34.05	70	40.70	63	31.98	41	28.28	123	33.98	22	27.16	540	33.94
그저 그렇다	106	40.15	152	41.08	70	40.70	80	40.61	47	32.41	174	48.07	19	23.46	648	40.73
다 소 부끄럽다	10	3.79	9	2.43	6	3.49	5	2.54	3	2.07	15	4.14	7	8.64	55	3.46
매우 부끄럽다	2	0.76	12	3.24	2	1.16	-	-	3	2.07	7	1.93	5	6.17	31	1.95

가지고 있다가 33.94 %,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가 17.60 %, 다소 부끄럽다가 3.46 %, 매우 부끄럽다가 1.95 %의 순으로 나타났다.

11) 신입생으로서의 알고싶은 사항

신입생들에게 신입생으로서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 표 - 46 >에서 보는

< 표 - 46 > 신입생으로서의 알고싶은 사항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학과의 특성 전망	119	45.08	159	42.97	73	42.44	83	42.13	75	51.72	164	45.30	24	29.63	697	48.81
장 학 금	31	11.74	58	15.68	19	11.05	21	10.66	16	11.03	38	10.50	20	24.69	203	12.76
해 외 유 학	20	7.58	11	2.97	9	5.23	14	7.11	17	11.72	17	4.70	2	2.47	90	5.66
학 생 썬 쿨	25	9.47	40	10.81	16	9.30	16	8.12	8	5.52	30	8.29	5	6.17	140	8.80
교 수 진 용	4	1.52	5	1.35	9	5.23	3	1.52	1	0.69	14	3.87	8	9.88	44	2.77
학 칙	1	0.38	3	0.81	-	-	4	2.03	3	2.07	1	0.28	-	-	12	0.75
교 육 내 용	47	17.80	63	17.03	37	21.51	34	17.26	18	12.41	56	15.47	10	12.35	265	16.66
졸업정원개 기 타	1	0.38	4	1.08	-	-	2	1.02	1	0.69	3	0.83	3	3.70	14	0.88
	4	1.52	4	1.08	1	0.58	6	3.05	2	1.38	8	2.21	2	2.47	27	1.70

바와 같이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8.81 %로 가장 높았고, 교육

내용이 16.66%, 장학금 관계가 12.76%, 학생 씨클이 8.80%, 해외 유학이 5.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졸업 후의 계획

1) 대학졸업 후의 계획

신입생의 대학졸업 후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표-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

< 표-47 > 대학졸업 후의 계획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취 직	128	48.48	265	71.62	109	63.37	101	51.27	81	55.86	186	51.38	41	50.62	911	57.26
대학원 진학	95	35.98	64	17.30	50	29.07	45	22.84	33	22.76	129	35.64	20	24.69	436	27.40
해외 유학	19	7.20	11	2.97	2	1.16	14	7.11	14	9.66	17	4.70	3	3.70	80	5.03
타대학 학과 편입	4	1.52	5	1.35	1	0.58	2	1.02	1	0.69	3	0.83	3	3.70	19	1.19
기 타	10	3.79	14	3.78	4	2.33	23	11.68	9	6.21	14	3.87	9	11.10	83	5.22

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의 57.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이 27.40%, 기타가 5.22%, 해외 유학이 5.03%, 타대학 학과에 편입하기 위해서가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신입생들에게 대학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나고 하는 물음에는 < 표-48 >에서 보는

< 표-48 >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대 학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농·임·수 산	1	0.38	5	1.35	-	-	32	16.24	31	21.38	12	3.31	5	8.64	86	5.41
공·건설업	-	-	2	0.54	-	-	3	1.52	4	2.76	41	11.33	-	-	50	3.14
씨어비스업	15	5.68	33	8.92	-	-	7	3.55	6	4.14	21	5.80	8	9.88	90	5.66
금융회사원	-	-	38	10.27	-	-	13	6.60	-	-	7	1.93	6	7.41	64	4.02
공 무 원	28	10.61	120	32.43	18	10.47	52	26.40	18	12.41	47	12.98	21	25.93	304	19.11
교 육 자 물 룬	74	28.03	14	3.78	114	66.28	3	1.52	4	2.76	15	4.14	4	4.94	228	14.33
정 치 법 론	-	-	16	4.32	1	0.58	-	-	-	-	1	0.28	6	7.41	24	1.51
언 어 교 인	37	14.02	15	4.05	-	-	1	0.51	1	0.69	3	0.83	3	3.70	60	3.77
종 교 인 인	2	0.76	3	0.81	-	-	2	1.02	-	-	4	1.10	1	1.23	12	0.75
사 업 가·정 제 인	-	-	2	0.54	1	0.58	3	1.52	3	2.07	2	0.55	-	-	11	0.69
사 업 가·정 제 인	8	3.03	66	17.84	2	1.16	12	6.09	7	4.83	20	5.52	13	16.05	128	8.05
문 학 예 술 교 수·연 구 원	34	12.88	2	0.54	-	-	1	0.51	1	0.69	-	-	2	2.47	40	2.51
교 수·연 구 원 기 타	47	17.80	16	4.32	31	18.02	33	16.75	54	37.24	128	35.36	2	2.47	311	19.55
기 타	11	4.17	12	3.24	-	-	21	10.66	13	8.97	38	10.77	3	3.70	98	6.16

바와 같이 교수 및 연구원이 19.55%로 가장 많고, 공무원이 19.11%, 교육자가 14.33%, 사업가 및 경제인이 8.05%, 기타가 6.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직업 선택시의 기준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직업 선택시의 기준을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 및

〈표-49〉 직업 선택시의 기준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인 면	11	4.17	60	16.22	6	3.49	25	12.69	16	11.03	45	12.43	5	6.17	168	10.56
사회적 지위	7	2.65	6	1.62	7	4.07	5	2.54	4	2.76	2	0.55	4	4.94	35	2.20
사회의 봉사	17	6.44	38	10.27	17	9.88	13	6.60	7	4.83	15	4.14	15	18.52	122	7.67
장래 전망	29	10.98	72	19.46	18	10.47	40	20.30	35	24.14	68	18.78	18	22.22	280	17.60
진 문 성	19	7.20	19	5.14	9	5.23	17	8.63	14	9.66	43	11.88	4	4.94	125	7.86
안 정 성	55	20.83	80	21.62	51	29.65	33	16.75	29	20.00	70	19.34	13	16.05	331	20.80
적 성 소 질	115	43.56	73	19.73	59	34.30	43	21.83	1	21.38	100	27.62	11	13.58	431	27.15
기 타	4	1.52	7	1.89	-	-	3	1.52	2	1.38	4	1.10	4	4.94	24	1.51

소질에 기준을 둔다가 전체의 27.15%로 가장 높았고, 직업의 안정성이 20.80%, 장래 전망이 17.60%, 경제적인 면이 10.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싶은 사항

신입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미를 즐기는 생활이 전체의 40.67%로

〈표-50〉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싶은 사항

대 학 항 목	인 문 대		사회과학대		사 범 대		농 과 대		해양과학대		이 공 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봉사하는 생활	43	16.29	80	21.62	44	25.58	43	21.83	19	13.10	48	13.26	17	20.99	294	18.48
취미를 즐기는 생활	127	48.11	149	40.27	46	26.74	83	42.13	63	43.45	153	42.27	26	32.10	647	40.67
지도하는 생활	30	11.36	29	7.84	28	16.28	14	7.11	4	2.76	21	5.80	8	9.88	134	8.42
현신하는 생활	44	16.67	37	10.00	31	18.02	17	8.63	27	18.62	65	17.96	7	8.64	228	14.33
여유있는 생활	10	3.79	49	13.24	12	6.98	21	10.66	23	15.86	51	14.09	8	9.88	174	10.94
기 타	10	3.79	16	4.32	6	3.49	8	4.06	4	2.76	10	2.76	7	8.64	61	3.83

가장 많고, 봉사하는 생활이 18.48%, 헌신하는 생활이 14.33%, 여유있는 생활이 10.94%, 지도하는 생활이 8.42%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살펴보면 < 표-5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부의 차가 전체의 30.80%로 가장 많고, 실업자 문제가 20.87%, 사회질서 문제가 16.59%, 사치 낭비문제가 13.32%, 청소년 문제가 8.11%, 후생복지 문제가 5.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51 >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대학 항목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빈부의 차	71	26.89	126	34.05	57	33.14	51	25.89	42	28.97	112	30.94	31	28.27	490	30.80
실업자	57	21.59	68	18.38	41	23.84	44	22.34	22	15.17	79	21.82	21	25.93	332	20.87
사치 낭비	47	17.80	38	10.27	20	11.63	25	12.69	20	13.79	53	14.64	9	11.11	212	13.32
사회질서	39	14.77	79	21.35	35	20.35	26	13.20	28	19.31	49	13.54	8	9.88	264	16.59
청소년 문제	22	8.33	23	6.22	7	4.07	18	9.14	19	13.10	38	10.50	2	2.47	129	8.11
후생복지	19	7.20	18	4.86	4	2.33	19	9.64	7	4.83	18	4.97	3	3.70	88	5.53
기타	4	1.52	5	1.35	2	1.16	3	1.52	4	2.76	6	1.66	4	4.94	28	1.76

IV. 결 론

1. 요약

1987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각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1) 신입생들의 본적지 및 성장지의 분포는 제주도가 신입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이 만 17세 ~ 19세에 속하고 있다.

(2) 종교는 무종교자가 56.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 21.56%, 기독교 11.44%, 천주교 6.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입생 전체의 14.89%가 입학하기 전 1년 이상 재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사항

(1) 신입생들의 부모의 생존여부를 보면 양친 모두 생존해 계신 학생이 84.98%로 가장 많고 모친만 생존한 경우 12.95%, 부친만 생존한 경우 1.57%로 나타났다.

(2) 보호자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78.88%로 가장 많으며 보호자들의 연령층은 40~50대 층이 대부분이다.

(3)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34.88%로 가장 많으며 신입생의 출생순위는 첫번째라고 응답한 학생이 24.39%로 가장 많고 두번째 21.43%, 세번째 19.74%, 네번째 15.46%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신입생의 가족수에 있어서는 5~7인으로 구성된 가정이 71.65%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가족 거주지는 95.90%가 도내이고 도외는 4.1%에 불과했으며, 보호자의 직업에 있어서는 신입생 과반수 이상이 농업으로 전체의 55.50%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이 13.01%, 공무원이 1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신입생들의 주거 형태는 전체의 88.56%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가주택이 6.22%, 아파트(연립주택)가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경제사정

(1) 신입생들의 가정의 월 수입은 20만원 이하가 2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비 부담은 신입생 전체의 90.19%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경제 수준은 겨우 유지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0.48%로 가장 많고, 비교적 여유가 있다가 33.44%, 곤란함이 17.03%, 매우 곤란함이 5.34%로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소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직 희망 여부에서 대부분의 신입생(84.17%)들은 부직을 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회에 대한 경험과 학비 마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평균 쓰는 용돈은 5천원~1만원이 31.43%, 1만~2만원이 23.95%, 5천원 이하가 18.73%, 2만~3만원이 13.76%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족 및 대인관계

(1) 신입생들의 가족내에서의 의논상대로는 부모와 상의하는 것보다는 형제(36.14%)와 더 많이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1.03%를 차지하고 가정의 분위기는 비교적 화목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0.97%로 가장 많고 언제나 화목하다가 12.07%, 비교적 화목하다가 2.51% 순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은 비교적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내에서의 문제점은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이 41.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이 20.93%,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17.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의 양육태도는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8.85%로 가장 많고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정도는 비교적 높다'가 69.58%, '그저 그렇다'가 21.50%, '부응하기 힘들다'가 5.97%, '비교적 낮다'가 1.51%, '관심이 거의 없다'가 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신입생들이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가 대부분 있는 편이며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대인관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하는 친구의 유형은 앞으로 더욱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장래문제에 대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의 상담자는 가족이 40.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가 33.31%, 선배가 10.12%,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이 9.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간에 사귀었던 경험에서는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8.08%로 나타났다.

5) 대학 및 학과 지망

(1) 신입생들이 본교에 지망하게 된 동기로는 경제적 이유와 입학 가능성을 고려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학과 선택 결정요인으로는 직업적 전망 때문인가 전체의 38.78%, 적성에 맞아서가 29.92%, 입학가능성 때문인가 13.26%,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7.67%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은 대강 알고 있었다가 전체의 51.73%로 나타나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지식을 갖고서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학과선택 시기는 학력고사 점수 발표를 한 직후가 42.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입학원서 접수 직전이 28.60%, 고교 재학시기 때가 23.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택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38.97%, 만족하다가 38.53%, 현재는 잘 모르겠다가 17.91%, 불만이다가 3.65%의 순이다.

6) 대학생활

(1) 신입생들의 입학후 주거지는 자가에서 거주하겠다가 61.79%로 가장 많고 대학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는 학비문제가 전체의 25.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래 진학문제가 23.19%, 학업 성취문제가 22.94%, 성격 및 대학사회 적응문제가 15.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에서 폭넓은 교양과 원만한 성격(42.25%)을 위한 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다고 하였다.

(2) 과외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취미 교양 분야가 37.46%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서는 학문과 자기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교수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며(56.13%) 독서는 독서시기와 독서량을 계획해서 하겠다보다는 시간 나는대로 틈틈이 하고 싶어하는 학생(79.13%)들이 많았다.

(3) 독서 종류는 문학 및 취미독서가 32.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30.48%, 교양도서가 29.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학 훈련에 대한 계획은 제1·2 외국어를 중심으로 수시로 하겠다가 42.74%, 제1 외국어 중심으로 하겠다가 24.95%, 전공과 같은 비중이 18.29%의 순이고, 입학 후 여가활동 계획은 특기 및 취미활동이 전체의 26.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에 대한 느낌은 그저 그렇다가 전체의 40.73%로 가장 많았고, 신입생으로서의 알고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8.81%, 교육내용이 16.66%, 장학금 관계가 12.76%, 학생씨클이 8.80%, 해외 유학이 5.66%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졸업 후의 계획

(1) 신입생의 대학졸업 후의 계획으로는 취직이 57.26%로 가장 많고, 대학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은 교수 및 연구원이 19.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무원이 19.11%, 교육자가 14.33%, 사업가 및 경제인이 8.05%의 순이며 직업 선택시의 기준은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기준을 둔다가 전체의 27.15%, 직업의 안정성이 20.80%, 장래 전망이 17.60%, 경제적인 면이 10.5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싶은 사항으로는 취미를 즐기는 생활이 전체의 40.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봉사하는 생활이 18.48%, 헌신하는 생활이 10.94%, 여유있는 생활이 10.94%, 지도하는 생활이 8.42%의 순이며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빈부의 차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0.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실업자 문제가 20.87%, 사회 질서문제가 16.59%, 사치낭비 문제가 13.32%, 청소년 문제가 8.11%, 후생복지 문제가 5.5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나타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비 조달은 90.1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학비 마련을 위해 부직을 희망하는 신입생이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학금 지급의 혜택 강화와 각종 부직 알선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선택한 학과에 대하여 사전의 지식이 없는 신입생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교에서 전공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기준한 지도의 방안수립이 요구되며, 학과에 대한 확실한 사전지식이 없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대학생활에의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학에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학과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신입생들의 가정 분위기가 비교적 화목하다가 전체의 약 73%인 반면 그저 그렇다가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대학에서는 신입생에 대해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4) 신입생들이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는 전체의 약 56%가 학문과 자기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요구하고 있어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단순히 지식전달보다는 원만한 인격 수양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과 학생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5)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입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는 학비문제와 장래 진학문제가 과반수 이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학금 및 부직 알선 그리고 진학에 필요한 최신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신입생들 중에 대다수가 과외활동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문활동은 물론 폭넓은 교양을 쌓도록 하고 씨클에 대한 사전지식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